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미래전략연구부 김동영 연구위원
(063-280-7174, 010-4121-1210)
- **담당실장**: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보도시점 : 2018년 06월 08일(금)부터

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 육성전략 제안

전통문화기술 아카이스센터구축, 컬처 해커톤 등 전통문화융합산업 플랫폼구축 제시
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최근 정책연구를 토대로 '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 육성전략' 정책브리프(통권 25호)를 발간했다.
- 정책브리프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전통문화기술의 원천인 무형문화재가 91개 지정되어 있어 전국 1위이자 전통문화창조센터, 국립무형문화유산원 등 전통문화자원 연구 및 활용을 위한 기관 집적으로 전통문화융합산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.
- 전북연구원은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통문화산업이 기념품수준의 산업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상품화까지는 지원정책이 있지만 전통기술의 첨단화, 이를 활용한 산업화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.
- 전북연구원은 SWOT분석과 ERRC분석을 통해 원형발굴, 인력양성, 산업화, 지속가능성 4대전략과 전략별 2대 핵심사업 전체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.
- 첫째,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화를 위해서는 사라져 가는 전통지식의 영구적인 디지털화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

의 전통기술 아카이브센터 구축이 필요하다.

- 둘째, 전통문화산업 종사자, 연구자, 기업 간의 국내외적 네트워킹과 On&Off연계를 위한 전통지식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.
- 셋째,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에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팀을 이뤄 분야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융합형 쉼터 해커톤을 통해 아이디어의 구체화와 산업으로서 성공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.
- 넷째, 단순한 전통문화 전승을 넘어 첨단기술 융합형 창조인재를 육성하는 청년 전통문화 기술 창업학교 개설이 필요하다.
- 다섯째,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에 맞춰 전통문화기술기반 메이커들의 집적을 위한 전통문화기술기반 메이커스페이스 및 메이커 스트리트 조성이 필요하다.
- 여섯째, 융복합 스타트업 아이디어 혁신교육을 상설화하고 지역내 문화적 인프라가 있는 한지, 목공예, 음식, 보석, 6차산업을 연계한 스타트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다.
- 일곱째,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최종수요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자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시민체험형 리빙랩 조성이 필요하다.
- 여덟째, 4차산업 혁명시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의 자금조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런칭을 위한 투자유치 솔루션을 지원해야 한다.
- 김동영 박사는 “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기반 산업에서 장소기반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, 최근 발전하고 있는 ICT기술과 장소를 결합한 새로운 융합산업 육성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 “전통문화와 첨단기술 융합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”고 주장했다.